

새만금 '아리울 스토리' 오늘 개막

11월 19일까지 진행...공연 시작·중간·마지막에 관객 참여하는 소통의 장 마련

새만금 상설공연 아리울스토리 시즌 2 '아리'가 26일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올해 11월 19일까지 7개월여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아리울스토리'는 새만금을 관광명소화 하기위해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주최하는 공연관광상품이다.

올해로 3화째를 맞는 '아리울스토리'는 올해부터 (재)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병천) 주관으로 진행된다.

'아리울스토리'는 첫째(2014년)에 1만9천여명의 관객을 지난해에는 메르스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1만7천여명의 관객을 동원해 새만금 대표 공연관광브랜드로 자리잡았다.

특히 지난해에는 유료관객이 54.2%의 비율로 전년 대비 크게 늘어

남(52%)으로써 전북을 대표하는 공연 관광 상품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아리울스토리'가 이 같은 가능성을 보이는 이유는 '높은 예술성'과 '뛰어난 작품성'으로 관객들의 호응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관계자의 말이다.

'아리울스토리'는 새만금 지역에 얽힌 신화와 풍어제 등의 문화적 자원을 판타지 형식으로 재구성해 창작한 작품이다.

올해 선보일 '아리울스토리 시즌2 아리'는 기존의 공연을 새롭게 구성해 아리울(새만금)이라는 판타지 공간을 배경으로 아리 공주와 울 장군 권력을 탐하는 반고 장군의 사랑과 대립, 권력투쟁을 강렬하고 화려한 퍼포먼스를 연출해 관객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다. 특히 '아리울스토리 시즌2 아리'가 지금까지의 공연과 달라진 가장 큰 특징은 관객이 함께 참여하는 공연이라는 점이다.

공연의 시작과 중간 마지막에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광대가 등장해 관객을 작품 속으로 안내하며, 광대의 지휘로 새로운 이야기들이 펼쳐진다.

또한, 공연 중간에는 광대가 관객을 무대로 불러내 함께 공연하는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2016 아리울스토리 시즌2 아리'의 개막식은 26일 공연팀 '타악동'의 타악기 퍼포먼스와 작은 국악관서트, 전통놀이체험 등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이 야외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이어 오는 11월19일까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만금방조제 신

시휴게소 인근에 위치한 '아리울예술창고'에서 '2016 아리울스토리 시즌2 아리'의 본 공연이 펼쳐진다.

관람료는 알(R)석 30,000원, 에스(S)석 20,000원이며, 공연문의는 상설공연추진단 전화(063-230-7461) 또는 홈페이지(www.jct.or.kr)로 하면 된다.

4월26일~30일간의 공연에 한해서 공연 홍보를 위해 무료입장이 가능하며, 선착순 전화예매를 통해 진행된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총연출을 맡은 김충한 안무가는 정동극장 '미소' 시리즈로 실력을 인정받은 연출가이며, 음악감독 및 작곡을 담당할 김태근 작곡가는 MBC '지붕 뚫고 하이킥' 등의 작품을 통해 광고 음악과 드라마 음악계를 주름잡는 스타 작곡가이다.

/정영수 기자

도 8·9급 공채 지원자 큰 폭 증가

2016년 제3회 지방공무원(8·9급) 임용 지원자가 지난해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도 지방공무원 지원자는 올해 1만2,076명으로 지난해(1만4,12명)에 비해 16%(1,664명), 2014년 보다는 무려 36%(3,202명)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이번 공무원 공채 경쟁률을 19대 1로 잠정 집계됐다.

이처럼 지원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도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신규공무원 채용규모를 확대하고 있으며, 계속되는 경제난으로 인해 비교적 안정적인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원서접수에서 지원자가 가장 많이 몰린 직렬은 일반행정9급으로 총 254명 선반에 6,881명이 지원해 평균 27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경쟁률이 가장 높은 분야는 일반행정9급 전라북도 2명 모집에 364명이 지원하여 182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원자의 연령분포는 20대가 7,388명(61.2%)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3,942명(32.6%), 40대 628명(5.2%) 순이며 10대 59명(0.5%), 50대도 59명(0.5%)이 지원하여 전 연령대에 걸쳐 공무원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또한 전체 지원자 중 여성 비율은 53.5%(6,460명)으로 남성지원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제3회 지방공채 필기시험은 오는 6월18일 전주시에 20여개 중·고등학교에서 일제히 실시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험장소는 6월8일 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된다.

/정영수 기자



25일 송하진 도지사가 문화체육관광부 정관주 제1차관을 만나 소리창조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위한 발빠른 행보

22일 20대 총선 당선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송하진 도지사는 내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전력투구에 나섰다.

이번주부터 중앙부처들의 본격적인 예산 편성이 시작되는 가운데 도의 신규사업 및 쟁점사업들을 내년에 원활히 추진시키기 위한 발빠른 행보이다.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도의 2017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문체부와 산업부 등 7개부처 27명과 면담하는 광복행보를

펼친다. 이 자리에서 송 지사는 도 핵심사업을 대상으로 설명과 추진을 위한 설득 논리를 펼쳤다.

먼저 송 지사는 기재부에서 전북 동부권 관광활성화를 위한 지리산 선악철도 시범사업의 필요성과 새만금 산업단지 물류수송을 위한 익산-대야 복선 및 군장산단 인입철도의 조기 완공을 건의했다. 또한 수서발 KTX 개통시 전라선 10회 증편도 빼 놓지

을 위한 새만금 유역2단계 수질개선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왕궁 잔여축사 매입 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4단계 증설사업 지원을 건의했다.

아울러 문체부, 산업부, 해수부 등을 잇달아 방문해 소리창조클러스터 조성사업, 에타통과, 태권도광역의 전라전립, 상용차 전장 기능인전 솔루션 지원사업 및 ICT 농업용 드론기반 구축사업 전북 입지 타당성 등을 피력했다.

/정영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 성과연봉제 민간 확산 나서

"공공부문 구조개혁 선도에너지·환경·교육 등 기능 조정도 강도 높게 추진"

박근혜 대통령이 성과연봉제 확산에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

공공기관부터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해 민간으로까지 퍼지게 함으로써 노동개혁과 공공개혁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복안이다.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으로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추진에 힘로가 예상되는 가운데 입법과 별개로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 노동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해 5월 국무회의에서 "그동안의 (노사정) 협의 내용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공공기관부터 임금피크제라든가 성과연봉제 등을 확산시켜서 노동시장 개혁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며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 확산의 첨병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어 지난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는 "공공부문에서 구조개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12개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 확대 도

입, 에너지·환경·교육 등 3대 분야 기능 조정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이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주재했던 것은 2014년 5월 한 차례 뿐이다.

박 대통령이 2년 만에 다시 공공기관장들을 한 자리로 불러 모으는 것은 성과연봉제 확산이 공공기관장 정상화 뿐만 아니라 노동개혁이 현장에 뿌리 내리는 데 필수 과제라는 인식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성과와는 아무 관계 없이 오랫동안 남아 있을 수 있는 '신(神)의 직장'이 공공기관이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이를 제대로 고치면 노동개혁과 공공개혁에서 하려는 상당 부분이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의 직장을 더 이상 신의 직장이 아니게끔 해나가는 것을 대통령부터 장관들 공공기관장 등이 챙겨나가야 하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간으로 확산시켜야 한다"며 "지난해에 비해 노조의 저항이 훨씬 세졌지만 이것(성과연봉제 확산)이 안되면 (우리 경제가) 버티지 못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성주 기자

정부, 공무원 승진 심사 범위 확대

최대 7배수에서 10배수로·12년 이상 7급 장기 재직자 상위직급 결원 무관하게 승진 범위 20%~30%로 늘려

정부가 역량을 갖춘 공무원에게 승진 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 기존에 최대 7배수까지였던 승진 심사 범위를 최대 10배수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승진 심사 범위를 기존 최대 7배수에서 최대 10배수로 확대했다.

상위 직급의 결원 수에 따라 승진 대상 인원이 정해지는 공무원 인사 특성으로 인해 성과를 내고서도 승진 심사 대상에 들지 못하는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또한 12년 이상 7급 장기 재직자의 경우 상위직급(6급)의 결원 여부와

무관하게 심사를 통해 승진할 수 있는 범위를 20%에서 30%로 늘렸다.

개정안은 이밖에 방역 분야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방역 직류'를 신설해 공직 내 방역 전문가를 확보하고, 체계적인 감염병 방역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5년 이상 재직할 경우 최대 1년 무급 휴직을 할 수 있는 자기계발 휴직 규정도 마련했다.

한시 채용 요건도 해당 지역에 본인이 5년 이상 거주하거나 거주한 자로 개선했다.

인사처는 "성과가 우수하고 역량을 갖춘 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확대해 성과 중심의 인사 관리를 지속적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주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maeil.com

주간(주말), 야간면접 특강

스피치·시낭송·면접·웃음치료·매직(마술)

◎ CEO, 2%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귀하게 날개를 단다!
◎ 감성과 파워 스피치로 언력(言力)의 사에 성공의 날개를 단다!
◎ 소통과 감성의 사에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날개를 단다!

<p>〈강의특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40년 지도경험과 노하우로 알차고 재미있는 강의 ② 저렴한 교육비로 주1회 교육 ③ 각종 대회 출전지도 (대통령상 3회 국무총리상 2회 배출) ④ 각 분야 전문 강사가 지도함 ⑤ 차명운행(유치부, 초등부)함 	<p>〈김양욱 전담교수 소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 · 전북대 교양학부 (토론과면접) 겸임교수 · 면접지도 전북1호 강사 · 한국음변인협회 전북회장 · 한국스피치&리더십컨설팅 대표 · 스피치&리더십 경력 40년 강사 및 스피치 칼럼리스트 · 저서: "35년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만말 스피치노하우" 등
---	---

※부별: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일반부, 면접지도, 개인지도, 주말반

(사)한국음변인협회, (사)한국음변단체총연합회 부설

한국스피치 & 리더쉽 컨설팅

한국스피치 & 면접 아카데미

위치: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번지(시청옆 대우빌딩 건너편 5층)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